



#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15('22-5) | 2022. 05. 02.

신정부의 한·미 안보관계 발전 전망  
이영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언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원식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역사적 관계  
홍성표

## 신정부의 한·미 안보관계 발전 전망

이영석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 한·미 관계의 변화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한·미 안보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미국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은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친서에는 북핵, 경제 안보는 물론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나가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미루어보아 한·미 관계는 현 문재인 정부보다 긴밀하게 발전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벌이는 전면적인 경쟁 관계는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가 안보 유지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추진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을 대략 살펴본 다음 한·미 안보 관계의 전망에 대해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국의 외교 전략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정부 출범과 함께 코로나 사태, 경제문제와 중국 전략, 북핵 전략 등 주요 전략 수립과 워드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G7 및 나토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등을 수행하였다.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안을 두고 추진했던 미국의 국가 이익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 외교 전략으로 추진했던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동맹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복원이 미국 패권의 유지와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주안을 두고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경쟁 및 견제 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미국은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다고 확신하며, 세계의 여러 나라 역시 이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다자주의와 동맹, 인권 및 민주주의 규범을 토대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핵심 전략은 중국 견제이다. 중국을 장기적이고 강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기존의 협력 대상에서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 유지해왔다. 하나 이를 발미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동맹국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 패권 유지 및 신기술 분야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바, 대한민국도 동맹국인 미국과 연계하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 중국의 외교 전략

시진핑은 2013년 3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의 외교 방식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패권주의 국가가 되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외교 전략은 일대일로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한다.

시진핑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것으로, 중국이 태평양 쪽의 미국을 피해 육상 실크로드는 서쪽, 해상 실크로드는 남쪽으로의 확대를 뜻한다. 이는 600년 전 명나라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했다는 남중국-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다시 장악하려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전략으로 인해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토 확장 욕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2017년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대한민국을 일컬어 “한국은 역사적 속국이었다”고 그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필자는 이 말에 중국의 숨겨진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즉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을 그냥 두지 않았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 하여 ‘먼 나라와 화친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고사성어는 『사기(史記)』의 「범수채택전(范雎蔡澤傳)」에 나오는 말로, 독자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외교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인근 나라를 침공해서 중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티벳과 신장 위구르 합병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한미 안보 관계 전망과 방향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틈이 생긴 한·미 관계를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첫째, 한·미 동맹의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경제 질서하에서 경제성장, 민주주의 및 문화 강국을 이루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았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 공동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국가 이익을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질서를 구현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특히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보다 개방된 그리고 다자주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 경제 질서와 활발한 대외 경제활동을 추진할 때 국력 향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가치에 맞는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리더십을 포기하다시피 했기에 바이든 정부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동맹국들이 호응하고 있고, 쿼드(Quad)에도 점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쿼드와 협력을 통해 국가 이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신정부와 협의와 협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증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포괄적인 대미 협력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넷째,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기치 아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본다. 이는 기후변화 및 환경, 보건 및 팬데믹, 핵 비확산 등을 포함하여 경제, 문화·규범 및 기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추진될 것이다. 우려되는 것으로, 한반도는 미·중이 충돌하고 대결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중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는 지형적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미 안보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월등하게 강화될 것으로 필자는 진단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언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 원 식

((사)북극성안보연구소 미디어전략센터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문방송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다. 민간인들의 사망이나 건물의 피폭 현장은 물론이고 군사 작전 진행 상황과 군수 지원 상황까지도 보고 들으며 전쟁의 참상과 전쟁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

## 전쟁과 언론

오늘날 언론의 전쟁보도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TV 방송이다. 베트남전이 TV를 통해 전쟁의 참상이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보도된 최초의 전쟁이다. 걸프전은 ‘미디어에 의한 대리전쟁’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언론의 비중과 역할이 컸다. 현대전은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언론의 전쟁보도는 전투수행과 거의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 수단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인데 비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체제하의 언론은 ‘언론통제’와 ‘국민의 알 필요성’ 관점에서 운영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은 ‘취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는 언론을 ‘국가권력 유지의 수단’ 또는 ‘국민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전쟁에서 언론을 통한 여론전·심리전의 전개 방법이나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언론에게 제공되는 정보 또는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객관성과 진실성 여부이다.

다시 말해 사실(fact)에 근거한 진짜뉴스나, 아니면 허위정보, 조작된 정보, 왜곡된 정보인 가짜뉴스(fake)를 생산, 유포, 전파하는거나 하는 차이이다.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는 평시에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전쟁시에는 더욱 어렵다. 군사작전 자체의 보안성과 비밀성이 유지되는데다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정보의 시효성이나 유효 기간이 전쟁의 국면 전개에 따라 단시간 또는 단시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정보 왜곡정보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단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 언론(미디어)은 전쟁 수행의 도구이자 수단

현대전은 여론전, 심리전, 하이브리드전이다. 이러한 전쟁 양상의 공통점은 언론이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미디어를 직접 활용하거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전쟁 당사국은 물론 제3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크다. 여론전은 미디어를 통해 아군의 전의와 우방국의 지원 및 협력을 최대화 시키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심리전은 아군에게 유리한 정보나 사실(팩트)을 반복 강조하여 상대국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허위 또는 왜곡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여 상대국의 전의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리전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나 경기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상황으로부터 국가 간의 협상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전쟁에서의 심리전은 전쟁 수행에 대한 대의명분과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활동과 동맹국 및 동조세력의 결집, 상대국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략적, 전술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된다. 즉 자국에게 유리한 전쟁 환경 조성 과 적국에게 불리한 상황 조성 및 국내외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과 도구,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

심리전의 대표적인 예가 사망자 숫자에 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사망자와 러시아군 사망자 수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사망자 숫자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사망자 규모는 양쪽 군대의 사기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전은 쉽게 말해 복합적인 전쟁 양상이다. 즉 기존의 재래식 전쟁에 비정규전이나 사이버전 외에도 심리전·여론전 등이 혼합된 전쟁의 형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국에게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타격을 입혀 자국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쟁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미디어는 현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 전쟁시 위기관리는 곧 여론관리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the first casualty of war is truth) 라는 말이 있다. 전쟁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객관성과 중립성 보다는 편견과 이념, 의도가 그 만큼 많이 작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쟁 때는 일반 국민이나 대중들은 전투 현장에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개인의 안전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종군취재 기자 등 다양한 미디어 수단에 의해 알려지는 정보를 접하는 게 일반적이다. 언론을 통한 전쟁보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이나 사태 발생시 군과 정부의 위기관리의 첫 번째 키는 언론을 통한 대국민 여론관리에 달려 있다. 여론의 향방이 군사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현대전·여론전의 특징이다. 현대전·여론전은 군과 정부의 공보 시스템이나 매스 미디어 이외에도 개인과 민간 기구에 의한 개인 미디어나 SNS를 이용한 소셜 미디어가 자국과 상대국은 물론 제3국의 세계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군사작전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오늘날의 전쟁은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전쟁 수행의 주된 수단은 군사력이지만 군사력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복잡적이라는 것 등이다. 특히 언론을 통해 비쳐지는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 그리고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에 대한 비인도적 살상 행위로 인한 국내외의 여론, 국제 기구의 압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우리에게 군사적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의 재탕이나 이와 유사한 도발 같은 것이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원인과 근거, 도발의 주체를 밝혀내기 쉽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을 빌미로 언론을 통한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하여 동조세력과 우호세력들을 선동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이든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우리 국민들을 자중 지란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반대 여론이나 심리적 왜곡을 목적으로 집요하게 활동에 나설 경우 혼란은 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는 군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점 보완하고, 특히 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

홍 성 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우크라이나는 기원전 32,000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국토면적 6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4천만 명으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이다. 중세까지 키이후를 중심으로 한 '키이반 루스'는 동슬라브족의 문화적 중심국가였다. 13세기에 몽골에게 점령당한 이후 600여년간 이 지역은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토만제국 및 러시아 등 외부세력에 의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지배를 받았다. 17세기에는 코작 헤트마네이트(Cossack Hetmanate)라는 융성한 국가를 건설했으나, 러시아와 폴란드의 분쟁에 휩쓸려 분할되었고, 얼마 후 결국 러시아로 흡수되었다.

러시아에서 짜르체제가 붕괴되던 1910년대 볼셰비키혁명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1917년 마침내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곧이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명한 뒤 1922년 소비에트연방 건설에 주축국으로 참여하였다.

소비에트 시절인 1932-33년에 발생한 홀로도모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백만명이 아사 또는 학살당하였고, 이때 서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편입되었다. 소비에트체제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였다. 우크라이나는 주 곡창지대로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밀이 가장 큰 주력산업이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핵무기 저장고로서 소련의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재독립하였다. 독립 후 우크라이나는 서방측과 러시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곡절을 겪었다. 첫 대통령 레오니드 크라우추크(Leonid Kravchuk, 1991-94)는 공산당 출신이었지만, 서방측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러시아와의 결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는 1994년 선거에서 레오니드 쿠치마(Leonid Kuchma, 1994-04)에게 패했다.



쿠치마대통령은 집권 10년 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급속한 민영화와 산업 발전을 추구하였지만, 그 또한 그의 개혁총리였던 빅토르 유시첸코(Viktor Yushchenko)에게 밀려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는 돈바스지역의 러시아계가 지지하던 새총리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를 지지하였고, 유시첸코는 선거기간 중 독극물에 중독되어 얼굴이 일그러졌다. 두 후보 진영의 세대결은 치열했고, 각종 부정선거 증거들이 돌출하는 가운데 야누코비치가 승리를 선언하자 유시첸코 지지자들은 불법선거를 차단 하자며 봉기하여 오렌지혁명으로 비화되었다. 야누코비치 지지자들은 선거결과가 번복 되면 분리해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결선 재투표를 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유시첸코 측이 유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집권한 유시첸코대통령의 임기는 혼란으로 일관되었다. 극심한 연료 부족과 당내의 갈등 및 의회에서의 투쟁 등은 민심을 이반시켜 유시첸코의 개혁을 와해시켰고, 결국 당내 경선에서 그의 동료이자 오렌지혁명 지도자였던 율리야 티모셴코(Yuliya Tymoshenko)에게 패하였다. 2010년 티모셴코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여 수많은 부정 선거 의혹 속에 야누코비치에게 패배했다.

야누코비치대통령은 즉각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에게 크림리아 세바스토폴항의 조차 기한을 연장시켜주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무기한 중단시켰으며 정적들을 구금시켰다. 2011년 티모셴코는 권력남용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고, 이듬해에는 그녀의 동지인 유리 루첸코(Yuri Lutsenko)도 유사한 죄목으로 투옥되었다. 2013년 4월 야누코비치대통령은 서방의 압력으로 루첸코를 석방했지만 친서방 정치 활동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2013년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유럽연합 회원국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를 옹호하자 대규모 군중시위가 일어났다. 수도 키이후의 마이단에는 데모캠프가 설치되고, 야당정치인들이 가세했다. 야누코비치를 지원하던 러시아는 천연가스 저가공급을 약속하며 진정시키고자 했지만, 반정부시위는 더욱 거세게 일었고,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보안군의 발포로 인하여 마이단 시위군중 수백명이 사상하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2014년 5월 야누코비치는 탄핵 직전까지 물리면서 정적인 티모셴코를 일시적으로 석방하고 대통령선거를 치루려고 시도했다.

한편, 2014년 초 러시아는 특수부대원 4만명을 크림리아에 잠입시켜 민심을 교란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크림리아의 러시아 편입을 주장하는 후보를 시장으로 선출되도록 공작했다. 결국 크림리아 반도는 러시아와의 병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러시아로 편입되었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은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분리독립을 주장하였다. 2021년 말부터 러시아의 푸틴은 14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및 북부 국경지대에 집결시켰고, 2022년 2월 24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바스와 북부지역 일대를 전면 공격했다. 러시아군의 항공폭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수세에 몰렸으나, 미국 및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북부와 동부에서 러시아군과 격전을 치루며 반격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푸틴을 전범으로 처리할 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군사지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이처럼 장기전으로 전환되었고, 병참선이 멀고 험한 러시아군은 결국 북부전선에서는 완전 패퇴하였고, 돈바스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에 부딪혀 이렇다 할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유엔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러시아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이 전쟁이 종료되면 우크라이나는 승패에 관계없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며,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오늘의 한일관계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소비에트체제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는 이제 자주독립국가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위성공화국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상호 경쟁과 협력의 대상으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